

## 임신 초기 출혈성 신증후군이 동반된 산모 1예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말영 · 신성준 · 이정호 · 김경수 · 이정상

### A Case of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Complicated with Pregnancy

Mal Young Kim, Sung Joon Shin, Jeong Ho Lee, Kyung Soo Kim, Jung Sang Le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한타바이러스는 임상적으로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HFRS)과 hantavirus pulmonary syndrome (HPS)을 일으키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HFRS는 한타바이러스 중 주로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HFRS 감염시 주증상으로 발열과 저혈압 그리고 소변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검사상 혈소판 감소증과 급성 신부전 소견을 나타낸다. 대개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나 필요시 혈액투석과 같은 신대체요법이 요구될 수 있다. 임신부에서의 한탄 바이러스 감염은 유행지역에서도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감염시 산모 뿐 아니라 태아의 조산 및 사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임신 초기에 감염된 경우 바이러스 항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진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비슷한 임상 및 검사 양상을 보이는 HUS/TTP, ITP, HELLP 증후군 및 SLE와 같은 다양한 질환과의 감별이 요구된다. 이에 저자들은 임신 초기 HFRS 감염 산모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38세의 몽고 여성으로 본원 내원시 임신 9주 (gravid and para ) 였다. 환자는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로 최근 여행력은 없었다. 환자는 10일 전부터 고열과 복통, 설사가 있었고 내원 4일 전부터 소변량 감소가 있었다. 내원 당시 혈액 검사소견상 wbc 13,490/mm<sup>3</sup>, hemoglobin 10.1 mg/dL, platelets 17,000/μL, total protein 6.0 mg/dL, albumin 3.1 mg/dL, BUN 82.8 mg/dL, creatinine 9.1 mg/dL, ALT 46 IU/L, AST 46 IU/L, uric acid 11 mg/dL, calcium 7.4 mg/dL, phosphorus 4.9 mg/dL였고 소변 검사상 proteinuria 4+, blood 3+였다. 이 외에 FANA 및 anti-dsNDA antibody는 음성이었고, 보체 검사상 C3와 C4는 각각 93.9 mg/dL 및 19.5 mg/dL였다. 소변량 감소가 지속되고 급성 신부전의 진행으로 혈액투석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전신상태 및 신기능의 호전을 보였다. 추 후 확인된 한탄바이러스 항체검사 결과 x1:4096 이상으로 양성소견을 보였다. 현재 환자는 임신 32주로 특별한 합병증 없이 임신 유지 중이다.

**Key Words** : 출혈성 신증후군, 임신부, 급성신부전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 Pregnancy, ARF